

집합과 관련된 ‘있다’ 구문의 한 유형*

이성우**

이 논문은 집합과 관련된 ‘있다’ 구문의 문법적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있다’ 구문을 처소 구문과 소유 구문으로 크게 나누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을 처소 구문과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구문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있다’ 집합 구문을 통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를 근거로 ‘있다’ 집합 구문이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있다’ 집합 구문이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다. 둘째, ‘있다’ 집합 구문을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의 정보단위를 화제와 초점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리고 ‘있다’ 집합 구문에서 어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구문의 의미 비교도 함께 다룰 수 있었다.

핵심어: ‘있다’, ‘집합’, ‘이중 주어 구문’, ‘정보구조’, ‘화제’, ‘초점’

1. 서론

한국어에서 ‘있다’는 최다빈도 용언으로서의 위치를 점한다(유현경

* 이 논문은 제194차 통사론연구회와 2019년 국어학회 여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박진호 선생님과 김천학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께 감사 인사 올린다.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998 참고). ‘있다’는 특히 존재 용언으로서 구체적인 공간에 어떠한 대상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구문에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분석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있다’ 구문을 처소 구문과 소유 구문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박양규 1975, 유현경 1998, 신선경 2002, 고영근·구본관 2008 등).¹⁾

- (1) 가. 책상에 책이 있다.
나. 철수는 학교에 있다.
다. 나는 책이 있다.
라. 이 옷은 소매가 있다.

(1가-나)는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예문들을 처소 구문으로 분류해 왔다. 다음으로 (1다-라)는 어떠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소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예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문을 소유 구문으로 처리해왔다.

더불어 ‘있다’는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도 쓰인다.

- (2) 가. 우리 가게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콜라, 커피, 사이다가 있다.
나. FC바르셀로나 선수로는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가 있다.
다. 우리학교 교사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2)는 어떤 전체집합 안에 어떠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집합은 구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추

1) 기존 논의에서는 처소 구문이라는 용어 대신 존재 구문이나 소재 구문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존재나 소재 대신 처소 구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있다’ 구문이 ‘처소’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중시한 것이다(이성우 2019 참고). ‘처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임동훈(2017)을 참고할 수 있다.

상화된 공간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대상은 추상적인 공간 안에 위치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구분된다. (2)와 같은 예문에 대해 신선경(2002)에서는 유형론적 존재구문, 박진호(2017)에서는 리스트 존재문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문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된 바 없다.

이 글에서는 (2)와 같은 구문을 ‘있다’ 집합 구문으로 통칭한다.²⁾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합 구문을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하나의 구문 유형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집합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인 특징은 ‘있다’ 구문은 정보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풀어볼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본고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집합 구문을 ‘있다’ 구문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다.

가.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드러낸다.

나.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 기본적 논의

이 장은 ‘있다’ 집합 구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있다’ 집합 구문의 전반적인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집합’의 개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2) 본고는 (2)와 같은 예문을 이해하는 데에 수학의 ‘집합’ 개념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 (4) 집합: [수학] 특정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 임의의 한 원소가 그 모임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모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가 다른가 같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표준이 있는 것을 이른다.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합’은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어떠한 대상이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이는 원소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획득하면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

주지하듯이 집합은 원소의 모임이다. 따라서 원소의 특성에 따라 집합이 규정된다. 또한 원소들이 모여 바로 전체집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집합을 먼저 형성한 이후에 전체집합을 이루는 구성 또한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종합하면, 전체집합, 부분집합, 원소가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추려 낼 수 있다.

- (5) 가. 전체집합에 여러 부분집합이 존재하고, 부분집합 안에 여러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나. 전체집합 안에 부분집합은 없으나, 여러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다. 전체집합 안에 어떠한 부분집합, 어떠한 원소도 없는 경우.

이 글에서는 (5)에서 설정한 전체집합과 부분집합, 그리고 원소의 관계가 ‘있다’ 구문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⁴⁾ (5)에 대응하는 예문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이로 인해 ‘있다’ 집합 구문에서는 자격의 조사 ‘-로’가 쓰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 익명의 심사위원이 명사들 간의 의미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이러한 의미 관계가 ‘있다’ 구문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여 ‘있다’ 구문의 한 유형으로 다루려고 하였다.

(6) 가. 라리가 팀은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 FC바르셀로나 선수는 메시와 라키티치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베일과 벤제마가 있다.

나. FC바르셀로나 선수는 메시와 라키티치가 있다.

다. 아마추어 리그에서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없다.

(6가)에서 전체집합은 ‘라리가’이고, 부분집합은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집합에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메시’와 ‘라키티치’, ‘베일’과 ‘벤제마’가 각각의 원소로 자리한다. 물론 부분집합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6나)와 같이 전체집합에 속하는 구성원만 나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불어 전체집합에 속하는 구성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6다)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6가-나)와 달리, (6다)는 ‘있다’ 구문이 아니라 ‘없다’ 구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집합의 여러 경우의 수는 ‘있다’ 구문을 통해서 표현된다. 더불어 (6)과 같이 ‘있다’의 반의어인 ‘없다’ 구문을 통해, 의미적인 빈칸을 채워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학에서 제시하는 집합의 개념과 ‘있다’ 구문은 몇 가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있다’ 구문에서 부분집합과 원소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7) 가. 지금 우리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라면은 신라면과 진라면이 있다.

나. 지금 우리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라면은 신라면(여러 봉지)과 진라면(여러 봉지)이 있다.

다. 지금 우리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는 라면은 신라면(한 봉지)과 진라면(한 봉지)이 있다.

(7가)는 맥락에 따라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듯하다. 하나는 ‘신라면’과 ‘진라면’이 각각 여러 봉지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면’과 ‘진라면’이 각각 한 봉지씩밖에 없는 경우이다. 전자와 관련된 예문은 (7나)이고, 후자로 해석되는 예문은 (7다)이다. 그리고 전자인 (7나)는 ‘신라면’과 ‘진라면’이 부분집합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한국어의 명사가 유형(type)과 개체(individual)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현상과 관련된다.⁵⁾ 즉, 특정 명사가 유형으로 해석되면 부분집합으로 분석되는 것이고, 특정 명사가 개체로 파악된다면 원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면, 집합 구문에서 부분집합과 원소가 구분되지 않는 현상은 수학에서의 집합 개념과는 다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체집합에 자리하는 명사의 의미적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수학의 전체집합을 흔히 원소나 부분집합의 단순한 합으로 알고 있다. 이와 달리, 언어에서의 전체집합은 수학의 전체집합과는 다소 다르다. 즉, 단순한 합 이상을 의미하는 전체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집합의 의미 차이는 ‘있다’ 집합 구문의 문법적인 특징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8) 가. 위원회에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가'. *위원회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나. 경찰에는 내 친구 철수와 영희가 있다.

나'. 경찰로는 내 친구 철수와 영희가 있다.

다. 우리 가족에는 내 조카 영수와 영희가 있다.

다'. 우리 가족으로는 내 조카 영수와 영희가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박진호(2016: 385)에서는 많은 언어의 명사가 하나의 개체(individual)를 가리킬 수도 있고, 유형(type)을 지칭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어 또한 이러한 언어의 하나로 생각된다.

전영철(2015)에서는 집단 표현을 집합명사, 보통명사, 의사집합명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예로 ‘위원회’, ‘경찰’, ‘가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집단 표현의 차이가 ‘있다’ 집합 구문의 문법적인 특징과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 (8)을 살펴본다.

먼저 (8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합명사인 ‘위원회’는 격조사 ‘-로’가 결합하지 못한다. 이처럼 (8가)의 ‘위원회’류와 같은 집합명사에 ‘-로’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회’라는 전체집합이 ‘김 선생’과 ‘이 선생’의 단순한 합이 아니기 때문이다.⁶⁾ 즉, 위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을 포함하는 것 외에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곧 ‘전체집합≠자격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위원회’라는 집합명사는 자격 조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셈이다.⁷⁾

이와 달리 (8나-다)는 ‘전체집합=자격 조건’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에’와 ‘-로’의 교체가 가능하다. 우선 (8나)에서 ‘철수와 영희’는 ‘경찰’이라는 전체집합에 포함된 원소이면서 동시에 ‘경찰’이라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8다)의 ‘내 조카 영수와 영희’는 ‘우리 가족’이라는 전체집합에 포함된 대상이면서, ‘우리 가족’이라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로 인해 (8나-다)의 전체집합에는 집합과 관련된 조사인 ‘-에’와 자격을 의미하는 조사인 ‘-로’가 모두 결합할 수

6) 전영철(2015: 804) 또한 (8가)의 ‘위원회’류와 같은 집합명사는 구성원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더불어 ‘가족’과 ‘경찰’은 ‘위원회’와 구분되는 집합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7) 앞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전체집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원회’와 같은 명사에는 ‘자격 조건’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전영철(2015: 805-807)에서는 위원회와 같은 집합명사는 위원회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 ‘조직의 의미’까지 첨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사들의 의미적인 성격을 ‘-들’의 결합 및 의미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따라 (8가)의 위원회는 단순한 자격조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한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⁸⁾

이와 같이 전체집합에 자리하는 명사의 의미적 성질에 따라 조사 결합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점은 수학의 집합 개념과 언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있다’와 관련된 집합 개념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집합 구문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 장부터는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 특히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여 논의를 펼친다.

3.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 분석

‘있다’ 집합 구문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사적인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있다’ 처소 구문, ‘있다’ 소유 구문과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의 조사 결합 양상을 먼저 다루고, 그에 따른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 구조를 논의할 것이다.

3.1. 조사 결합 양상

이 절은 ‘있다’ 집합 구문의 조사 결합 양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전체집합에 결합하는 조사를 중심으로 ‘있다’ 집합 구문의 조사 결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을 확인하면서, ‘있다’ 집합 구문의 조사 결합 양상을

8) 기존 논의에서는 ‘부류 - 성원’의 의미 관계로 (8)을 분석하기도 한다. 본고의 설명 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떠한 성원이 어떠한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로’가 결합한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룬다. 먼저 ‘있다’ 처소 구문의 예부터 확인한다.

- (9) 가. 책상에 책이 있다.
- 나. *책상은 책이 있다.
- 다. *책상이 책이 있다.
- 라. 책상에는 책이 있다.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 처소 구문에서 처소에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는 대개 ‘-에’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9나-다)와 같이, 처소에 보조사 ‘-은/는’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9라)와 같이 처소격 조사 ‘-에’가 결합한 후에는 보조사 ‘-는’이 이어 붙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있다’ 집합 구문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 (10) 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에는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이 있어.
- 나.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에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이 있어.
- 다.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은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이 있어.
- 라.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이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이 있어.

(10)을 통해 우리는 전체집합을 의미하는 명사에 결합하는 조사의 양상이 일반적인 처소 구문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한다.

첫째는 전체집합을 의미하는 명사에 ‘-에는’은 결합이 가능하나, ‘-에’만 단독으로 붙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10가-나). 이는 (9가,라)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전체집합의 의미적인

성질에서 찾을 수 있다. 전술했듯이, 전체집합은 물리적인 처소가 인지적인 대상으로 추상화된 것이다. 즉, 위의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적인 성질로 인해 전체집합에 ‘-에’만 결합하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둘째는 전체집합을 의미하는 명사에 ‘-는’이 바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10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있다’ 처소 구문과 구분되는 사항이다(9나). 물론 주격조사 ‘-이/가’의 결합도 가능하나, 화자에 따라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¹⁰⁾ 이러한 사항은 ‘있다’ 소유 구문과도 다소 다른 점이다.

(11) 가. 나는 책이 있다.

나. 내가 책이 있다.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 소유 구문의 첫째 명사구에는 주제의 보조사 ‘-은/는’,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가 붙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있다’ 집합 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째 명사구와 조사의 결합 양상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된다.

더불어 ‘있다’ 집합 구문이 다른 ‘있다’ 구문과 완전히 구분되는 부분도 있다.

(12) 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로는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이 있어.

나. *나로는 책이 있다.

9) ‘-에는’이 결합이 가능한 이유는 정보구조와 관련되어서 파악할 수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전체집합은 화제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에’는 다소 어려우나, ‘-에는’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10)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집합은 대개 화제의 정보단위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초점 표지인 ‘-이/가’의 결합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합 구문의 첫째 명사구에는 ‘-로’가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있다’ 소유 구문의 첫째 명사구에는 ‘-로’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술했듯이, 전체집합에 ‘-로’의 결합이 가능한 이유는 전체집합과 이에 속하는 대상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집합에 원소가 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체집합과 ‘-로’ 결합과 관련된다. 이러한 설명을 위의 예문에 적용하면, (12가)의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전체집합에 포함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이라는 전체집합에는 처소격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기도 하고, 자격의 조사 ‘-로’가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있다’ 소유 구문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첫째 명사구에 ‘-로’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대개 ‘있다’ 소유 구문에서는 첫째 명사구에 소유주가 위치하여 둘째 명사구와 소유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소유 관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분석된다(신선경 2002 참고).¹¹⁾ 이러한 소유 관계에서 소유주에게 특별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첫째 명사구와 ‘-로’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소유 구문에서 첫째 명사구에 ‘-로’ 대신 ‘-로서’가 결합하는 것은 모두 어색하다.

(13) 가.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날로서는 5월 11일, 5월 13일, 5월 15일이 있어.

나. *나로서는 책이 있다.

11) 신선경(2002)에서는 ‘전체 - 부분’, ‘친족’, ‘속성’, ‘소유권(임시관리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달리, Dixon(2010)에서는 소유 관계를 ‘전체 - 부분’, ‘친족’, ‘속성’, ‘연합’, ‘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천학 2012 재인용). 여기서 논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주에게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주지하듯이 ‘-로서’ 또한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집합에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재는 그렇지 않다. 이는 (13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서’의 ‘-서’가 ‘있다’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¹²⁾

이와 같이 조사 결합의 양상에서 ‘있다’ 집합 구문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살필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있다’ 집합 구문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있다’ 집합 구문의 첫째 명사구에 주격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요구된다. 이는 ‘있다’ 집합 구문과 소유 구문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¹³⁾

3.2. ‘있다’ 집합 구문의 이중 주어 구문 여부 검토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있다’ 집합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는 주격조사 ‘-이/가’, 처소격 조사 ‘-에’, 자격의 조사 ‘-로’가 결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있다’ 집합 구문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 분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이 이중 주어 구문인지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소유 구문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있다’ 집합 구문에서 주어에 가까운 성분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12) ‘-에서’ 또한 ‘있다’의 일부 구문에서만 쓰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에서’가 쓰일 수 있는 ‘있다’의 구문 유형에 대해서는 신선경(2002)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에서’가 ‘있다’로 인해 잘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한 논의로는 송창선(2009)를 들 수 있다.

13) 소유 구문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 처리한 논의로는 임동훈(1997)을 제시할 수 있다. 임동훈(1997)에서는 ‘많다’ 구문을 검증하고 있으나, 큰 범주에서는 소유 구문으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진호(2017: 325-326)에서는 ‘많다’는 ‘많이 있다’와 거의 등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중 주어 구문을 판별하는 방법은 주어를 검증하는 장치와 동일하다. 이중 주어 구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가 모두 주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국(2016: 83)에서는 주어 검증 장치로 크게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① 관계화’, ‘②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 ‘③ 복수표지 -들의 분포’, ‘④ 재귀사 결속’, ‘⑤ 수량사 통제’, ‘⑥ 복문에서 생략된 동일 명사구의 지시’, ‘⑦ 주격조사 대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에 ① 관계화, ②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와의 호응, ⑤ 수량사 통제를 적용하여, ‘있다’ 집합 구문이 이중 주어 구문인지 검증한다.¹⁴⁾ 그리고 이를 통해 ‘있다’ 집합 구문의 명사구 중에서 주어에 가까운 성분을 찾아보려고 한다. 먼저 ‘있다’ 집합 구문의 관계화 양상부터 살펴본다.

(14) 라면은 신라면과 진라면이 있다.

가. *신라면과 진라면이 있는 라면

나. *라면은 있는 신라면과 진라면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 집합 구문의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는 관계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의 주어성이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있다’ 소유 구문은 관계화 양상이 위와 다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있다’ 소유 구문은 크게 비양도성 소유 구문과 양도성 소유 구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계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14) 김민국(2016: 83)에서는 ①-⑤는 주어 검증의 필요기준이고, ⑥-⑦은 모든 주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①-⑤를 중심으로 ‘있다’ 집합 구문을 검증한다. 다만 ③,④의 기준은 ‘있다’ 집합 구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배제하였다.

(15) 가. 철수는 여동생이 있다(비양도성 소유).

A. 여동생이 있는 철수

B. *철수가 있는 여동생

나. 철수는 돈이 있다(양도성 소유).

A. 돈이 있는 철수

B. 철수가 있는 돈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양도성 소유에서는 첫째 명사구만 관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양도성 소유에서는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의 관계화가 모두 가능하다.¹⁵⁾ 따라서 관계화 양상에서 ‘있다’ 소유 구문과 ‘있다’ 집합 구문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그 양상이 비양도성 소유 구문에 비교적 가깝다는 점도 포착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있다’ 집합 구문의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는 모두 주어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을 비교했을 때, 비교적 주어성이 높은 명사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 및 수량사 통제로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검증장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본다.

(16) 가. 우리 위원회는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있으시다.

가'. 우리 위원회는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께서 계시다.

가". 우리 위원회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나. 우리 가족은 나의 조카가 둘이 있다.

15) 이와 관련하여 김민국(2016: 210-213)에서는 양도성 소유 구문은 처소 구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비양도성 소유 구문은 처소 구문으로 분석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맞물려 ‘있다’ 처소 구문의 각 성분은 모두 관계화가 가능하다.

(1) 책상에 책이 있다.

가. 책이 있는 책상

나. 책상에 있는 책

먼저 (16가-가))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어느 명사구에 호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둘째 명사구인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6나)에서 수량사 ‘둘’은 둘째 명사구인 ‘나의 조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있다’ 집합 구문에서 주어에 가까운 것은 둘째 명사구가 된다. 그리고 첫째 명사구는 전체 문장의 화제로 파악할 수 있다. ‘-은/는’의 결합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된다.¹⁶⁾

이처럼 ‘있다’ 집합 구문은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에 모두 주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있다’ 집합 구문은 소유 구문과 공통점이 있으나,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있다’ 집합 구문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되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면,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있다’ 집합 구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한다.

4. ‘있다’ 집합 구문의 정보구조적 분석

앞 장에서 우리는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다루었다. ‘있다’ 집합 구문의 조사 결합 양상을 정리하고, ‘있다’ 집합 구문이 이중 주어 구문인지 살펴보았다. 물론 ‘있다’ 집합 구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있다’ 집합 구문을 다루려고 한다.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있다’ 집합 구문을 살펴보아야

16) 첫째 명사구가 왜 화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더불어 화제라는 명칭 및 문장성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찰은 이 글 범위 바깥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대신 최근에 김민국(2016), 함병호(2018ㄱ,ㄴ)에서 다루진 바 있다는 사실만 언급해둔다.

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⁷⁾

앞 장에서 우리는 ‘있다’ 집합 구문의 첫째 명사구의 정보단위를 ‘화제’로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의 첫째 명사구가 화제로 분석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화제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함병호(2016, 2018)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함병호(2018: 329-330)에서는 정보구조의 문장 분석은 삼분 구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삼분 구조 방식은 주어와 화제의 관련성을 보인다고 언급한다.¹⁸⁾ 그리고 화제와 초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든다(함병호 2018: 330).

(17) 가. 담화맥락- 선행 문맥에 따른 정보단위의 분절

나. 명사구에 결합된 조사 - ‘-이/가’와 ‘-은/는’의 차이

다. 통사 구조상 특징 - 서술어의 논항 여부, 어순 변이, 분열문 등
라. 명사구의 의미 특성 - 명사구의 지시적 주어집성(한정성, 총칭성, 활성화 등)

위에서 제시된 화제와 초점의 분석 방법은 ‘있다’ 집합 구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이 절에서는 (17)에 따라 ‘있다’ 집합 구문에서 등장하는 각 명사구의 정보단위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단위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법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어순변이와 한정성을 중심으로 ‘있다’ 집합 구문을 다룰 것이다.

17) ‘있다’ 구문과 정보구조의 관련성은 박진호(2017)를 참고할 수 있다. 박진호(2017)에서는 한중일의 ‘있다’ 구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이로 인해 개별 구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8) 삼분 구조 방법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둘로 나뉘는데, ‘화제-배경-초점’으로 분석하는 논의와 ‘초점-연결부-꼬리부’로 처리하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화제-배경-초점’으로 ‘있다’ 집합 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한다.

4.1. 명사구의 정보단위

이 절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의 정보단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담화 맥락이 상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이 사용될 수 있는 담화 맥락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8) 가.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에 대해서는 알고, 구성원을 모르는 상황)

Q: [소녀시대에는]화제 [누가]초점 [있어?]배경

A1: [소녀시대에는]화제 [윤아와 태연이]초점 [있어.]배경

A2: *윤아와 태연이 소녀시대에 있어.

A3: [윤아와 태연이 있어.]초점(전체 문장 초점)

나. (윤아와 태연은 알고 있으나, 어느 아이돌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황)

Q1: *윤아와 태연은 어디에 있어?

Q2: [윤아와 태연은]화제 [어느 그룹에]초점 [있어?]배경

Q3: *어느 그룹에 윤아와 태연이 있어?

A1: [윤아와 태연은]화제 [소녀시대에]초점 [있어.]배경

A2: [소녀시대에 있어.]초점(전체 문장 초점)

(18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초점은 소녀시대의 구성원인 ‘윤아’와 ‘태연’이 된다. 이와 달리 ‘소녀시대’는 화·청자가 공유한 정보로서 ‘화제’의 정보단위를 부여받는다.

화자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초점의 어순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이를 (18가)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18가Q)의 대답이 되기 위해서는 구정보인 ‘소녀시대’가 문두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신정보인 ‘윤아’와 ‘태연’이 ‘소녀시대’ 뒤에 자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18가A1)은 가능하나, (18가A2)는 불가능하다. 물론 초점만 대답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18가A3)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나)는 (18가)와 다르게 분석된다. (18나)에서 화제는 ‘윤아’와 ‘태연’이 되고, 초점은 ‘소녀시대’이다. 이러한 경우, 화자는 (18나Q2)의 질문만 할 수 있다. 이는 화제와 초점의 어순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다시 말해, (18나Q1)과 (18나Q3)는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다.¹⁹⁾ 더불어 비록 (18나Q2)가 허용이 되나, 유표적인 장치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그룹’이라는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18나Q2)와 같이 질문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윤아’와 ‘태연’이 어느 그룹에 속한다는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보의 요구로 인해 언중들은 (18나Q2)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18나Q2)의 대답인 (18나A1)가 직관에 따라 다소 어색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추정은 위와 같은 구문의 정보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있다’ 집합 구문은 ‘부류-성원’ 구문과 비슷하다. 이때 ‘성원’은 신정보로서 초점일 가능성이 높고, ‘부류’는 구정보로서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²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집합이 초점이 되어 화제 뒤에 배치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4.2.에서 후술).

19) (18나Q1)은 처소 구문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질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18나Q3)은 화제인 [윤아와 태연]에 초점 표지인 ‘-이/가’가 결합하고 있으므로, 해당 맥락의 적절한 발화로 보기 어렵다.

20) 이 글에서는 일단 정문으로 판정했으나, (18나A1)을 비문 혹은 어색한 문장으로 판정할 가능성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탐색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구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의는 4.3.에서 상세히 이루어진다.

21) 부류-성원 구문에 해당하는 예로는 ‘꽃은 장미가 이쁘다’와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부류는 ‘꽃’에 해당하고, 성원은 꽃의 한 종류인 ‘장미’가 해당한다. 이러한 부류-성원의 관계는 전체집합-부분집합/원소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러한 ‘부류-성원’ 구문의 정보구조를 다룬 최근의 논의로는 두임림(2010), 김건희(2018)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부류’를 화제로, ‘성원’을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8나Q2)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구문이 있다.

(19) (윤아와 태연은 알고 있으나, 어느 아이돌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황)

Q1: [윤아와 태연은]화제 [어느 그룹에]초점 [있어?]배경

Q2: [윤아와 태연은 어느 그룹이야?]초점(문장 전체 초점)

A1: [윤아와 태연은]화제 [소녀시대에]초점 [있어.]배경

A2: [윤아와 태연은 소녀시대야.]초점(문장 전체 초점)

‘있다’ 구문인 (19Q1)과 ‘이다’ 구문인 (19Q2)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19Q1-Q2)에 대한 질문으로 (19A2)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19A1)과 같은 ‘있다’ 구문보다는 (19A2)와 같은 ‘이다’ 구문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3.에서 후술).

이처럼 ‘있다’ 집합 구문에서 전체집합은 ‘화제’로 분석되고, 부분집합이나 원소는 ‘초점’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있다’ 처소 구문과 구분되는 사항이다. ‘있다’ 처소 구문은 맥락에 따라 초점과 화제가 다양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 가. (철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

Q1: [철수는]화제 [어디에]초점 [있니?]배경

A1: [철수는]화제 [방에]초점 [있어요.]배경

A2: [방에 있어요.]초점(문장 전체 초점)

나. (누가 방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

Q1: [방에는]화제 [누가]초점 [있니?]배경

A1: [방에는]화제 [철수가]초점 [있어요.]배경

A2: [철수가 있어요.]초점(문장 전체 초점)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화 맥락에 따라 ‘있다’ 처소 구문에서는 화제와 초점이 바뀔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처소가 화제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화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있다’ 집합 구문과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소유 구문을 비교할 수도 있다.

(21) 가. (서로 가진 문법 개론서를 확인하는 상황)

Q1: [너는]화제 [어떤 책이]초점 [있니?]배경

A1: [나는]화제 [표준국어문법론이]초점 [있어.]배경

A2: [표준국어문법론이 있어.]초점(문장 전체 초점)

나. (인터넷에서 희귀한 책을 발견한 상황)

Q1: [이런 책은]화제 [누가]초점 [있을까?]배경

A1: [이런 책은]화제 [김 선생이]초점 [있어요.]배경

A2: *김 선생이 있어요.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 소유 구문에서도 화제와 초점이 바뀔 수 있다. 즉, 소유주가 화제로 분석될 수도 있고, 초점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소유주’가 초점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21나A2)가 어색하다는 점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있다’ 소유 구문에서는 소유주와 소유물이 모두 화제와 초점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소유주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²²⁾

종합하면, ‘있다’ 집합 구문에서 명사구가 가지는 정보단위는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양상이다. 다만 ‘있다’ 집합 구문의 정보단위는 ‘있다’ 처소 구문보다는 ‘있다’ 소유 구문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단위는 ‘있다’ 집합 구문의 어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22) 박진호(2017: 327)에서는 한국어의 소유주는 ‘구정보/한정적’이기 때문에 화제로 표현되기 쉽다고 언급하고 있다.

4.2. 어순 변이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전체집합은 화제의 정보단위로 분석되고, 부분집합이나 원소는 초점의 정보단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어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듯이, 문장은 대개 ‘화제 - 초점’의 어순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다’ 집합 구문도 ‘전체집합 - 부분집합/원소’의 어순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어순은 비교적 고정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살펴본다.

(22) 가. 우리학교 교사에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나.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우리학교 교사에 있다.

다. 우리학교 교사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라. *김 선생과 이 선생은 우리학교 교사는 있다.

(22)와 같이 ‘있다’ 집합 구문에서는 첫째 명사구와 둘째 명사구의 어순 변이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학교 교사’가 전체집합이면서 화제이고,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원소이면서 초점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러한 점은 ‘있다’ 처소 구문과 구분되는 사항이나, ‘있다’ 소유 구문과는 동일한 사항이다.

(23) 가. 책이 책상에 있다.

나. 책상에 책이 있다.

다. 내가 책이 있다.

라. *책이 내가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있다’ 처소 구문과 달리,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소유 구문의 어순이 바뀔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³⁾ 따라서 ‘있다’ 집합 구문의 어순은 비교적 고정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있다’ 집합 구문에서도 어순 변이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24) 가. 우리학교 교사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있다.

나.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우리학교 교사로 있다.

(24)와 같은 예문은 전체집합에 ‘-로’가 결합한 집합 구문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학교 교사’라는 전체집합에 조사 ‘-로’가 결합하고, ‘우리학교 교사’의 원소인 ‘김 선생’과 ‘이 선생’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예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집합에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어순 변이의 양상이 다르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따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로’논항의 어순 변이가 가능한 ‘있다’ 구문과 그렇지 않은 구문으로 구분하는 관점을 취한다. 전자는 ‘있다’가 ‘근무하다’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해당한다’로 분석될 수 있는 구문이다.²⁴⁾ 이 중에서 본고는 후자를 ‘있다’ 집합 구문과 같은 의미로 분석한다. 이러한 두 구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시도를 통해 드러내본다.

(25) 가. 우리학교 교사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근무한다.

나. 우리학교 교사로 김 선생과 이 선생이 근무한다.

다.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우리학교 교사로 근무한다.

23) 다만 소유주에 ‘-에게’가 결합할 경우, 어순 변이가 가능하다(예: 나에게 책이 있다, 책이 나에게 있다). 다만 이러한 예문은 소유 구문인지 처소 구문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며, 연구자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2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사 ‘있다’의 둘째 의미로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가 ‘근무하다’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선경(2002)에서는 ‘머무르다’나 ‘근무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있다’ 구문을 사건적 존재 구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라. 우리학교 교사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해당한다.

마. *우리학교 교사로 김 선생과 이 선생이 해당한다.

바. *김 선생과 이 선생이 우리학교 교사로 해당한다.

(25가-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가 ‘근무하다’로 해석되는 경우 ‘-로’ 논항의 어순 변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있다’ 집합 구문으로 해석되는 (25라-바)의 경우, 어순 변이가 불가능하다. 어순 변이가 가능한 이유는 (25가-다)의 ‘-로’ 논항과 (25라-바)의 ‘-로’ 논항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5가-다)에서 ‘-로’ 논항은 ‘근무하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이다. 이와 달리, (25라-바)에서 ‘-로’ 논항은 화제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25라)는 자연스러우나, (25마)는 비문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25라-마)의 ‘-로’ 논항이 화제이므로, ‘-은/는’이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²⁵⁾ 그리고 이러한 ‘있다’ 집합 구문의 ‘-로’ 논항이 보유한 화제로서의 성격은 어순 변이에도 영향을 미친다(25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24가)와 같은 예문을 ‘있다’ 집합 구문이 아닌 것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있다’ 집합 구문의 어순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어순의 고정은 ‘있다’ 집합 구문과 ‘있다’ 처소 구문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또한 ‘있다’ 소유 구문과 유사한 현상이기도 하다.

4.3. 명사구의 한정성과 비한정성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있다’ 집합 구문의 전체집합은 화제로 분석되고, 부분집합이나 원소는 초점으로 처리된다. 이와 맞물려 ‘있다’ 집합

25) 더불어 ‘해당하다’라는 서술어는 ‘-로’ 논항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근거로 들 수 있다.

구문의 전체집합은 비한정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부분집합이나 원소는 한정성의 의미 자질을 획득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 ‘있다’ 집합 구문을 ‘이다’ 구문과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살펴본다.

(26) 가. 체인 커피점은 스타벅스, 탐앤탐스 등이 있다.

나. 체인 커피점은 스타벅스, 탐앤탐스가 있다.

다. 체인 커피점은 스타벅스, 탐앤탐스이다.

(26가-나)는 ‘있다’ 집합 구문이다. 각 명사구에 대해 설명하면, (26가-나)의 전체집합은 ‘체인 커피점’, 그리고 이에 속한 원소는 ‘스타벅스’, ‘탐앤탐스’가 된다. 다만 (26가-나)와 같은 예문은 ‘스타벅스’, ‘탐앤탐스’ 외에 다른 체인 커피점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²⁶⁾ 따라서 전체집합인 ‘체인 커피점’은 비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원소인 ‘스타벅스’나 ‘탐앤탐스’는 비교적 한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와 달리 (26다)와 같은 ‘이다’ 구문은 ‘체인 커피점’의 종류가 ‘스타벅스’, ‘탐앤탐스’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체인 커피점은 곧 스타벅스, 탐앤탐스뿐’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집합인 ‘체인 커피점’과 ‘스타벅스’, ‘탐앤탐스’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⁷⁾

26) 이러한 경우, (26가)와 같이 ‘등’과 같은 표지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하기도 하나, (26나)와 같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27) 박진호(2017: 329)에서는 중국어의 ‘있다’ 구문에서 ‘是’를 쓰는 경우와 ‘有’를 쓰는 경우가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是’를 사용하는 경우 전체집합에 속한 대상을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나, ‘有’를 사용하는 경우, (26가-나)의 분석과 같이 다른 대상이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전달한다고 한다. 이는 (26)의 ‘이다’와 ‘있다’의 의미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있다’ 집합 구문과 ‘이다’ 구문의 의미 차이는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

(27) (윤아와 태연은 알고 있으나, 어느 아이돌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황)

Q1: [윤아와 태연은]화제 [어느 그룹에]초점 [있어?]배경

Q2: [윤아와 태연은 어느 그룹이야?]초점(문장 전체 초점)

A1: [윤아와 태연은]화제 [소녀시대에]초점 [있어.]배경

A2: [윤아와 태연은 소녀시대야.]초점(문장 전체 초점)

(27)은 (19)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27A1)보다는 (27A2)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있다’ 구문과 ‘이다’ 구문의 의미 차이에 기인한 현상으로 파악한다.

위에서 우리는 ‘있다’ 집합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 언급한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27A1)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27A1)은 ‘윤아’와 ‘태연’ 외에 다른 멤버가 ‘소녀시대’라는 그룹에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정보의 과잉이 될 수 있다. 즉, 질문자가 요구한 정보는 ‘윤아’와 ‘태연’이 어느 그룹에 속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화자는 윤아’와 ‘태연’ 외에 다른 멤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7A2)와 같이 답변하는 것이 담화 맥락상 보다 더 적절하다. 이러한 주장은 (27Q1)과 (27Q2) 중에서 (27Q2)가 더 자연스럽다는 점을 통해서 방증된다.²⁸⁾

이처럼 ‘있다’ 집합 구문을 통해 화자는 어떠한 전체집합에 속하는

28) 이러한 논의는 (27A1)이 어색하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직관상 (27A1)보다 (27A2)가 더 자연스럽고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있다’와 ‘이다’의 의미 차이에서 찾아보려는 것이다.

대상을 나열한다. 그리고 해당하는 대상 전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있다’ 집합 구문의 전체집합은 열린 집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집합이 닫힌 집합일 경우, 특정한 표지를 통해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28) 가. 체인 커피점은 스타벅스, 탐앤탐스만 있다.

나. 체인 커피점은 스타벅스, 탐앤탐스밖에 없다.

다. 체인 커피점은 스타벅스, 탐앤탐스뿐이다.²⁹⁾

(28)의 예문은 ‘스타벅스’와 ‘탐앤탐스’ 외에 다른 체인 커피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즉, 전체집합이 닫힌 집합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집합이 닫힌 집합일 경우, ‘뿐’, ‘만’, ‘밖에’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표지가 없는 경우, ‘있다’ 집합 구문의 전체집합이 대개 열린 집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화자가 열린 집합인 전체집합에 속한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 특정한 대상만을 언급한다. 이때 언급되는 특정한 대상은 해당 전체집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제시된 대상은 전체집합을 대표하는 원소인 것이다. 제시된 대상이 전체집합을 대표하는 원소여야 전체집합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체집합에 속하는 대상 하나만을 언급하는 예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29) 가. FC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있다.

29) ‘뿐’, ‘만’, ‘밖에’는 다른 의미영역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의 의미 차이를 논의하는 것은 본고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박진호(1994, 2015), 박승윤(1997)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가 있다.
- 다. FC바르셀로나에는 메시가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에는 호날두가 있다.
- 라. FC바르셀로나는 메시다.
- 마.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다.
- 바. FC바르셀로나가 메시라면,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다.

(29가-나)는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구성 원소 하나를 단순히 언급한 예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대표로 ‘메시’와 ‘호날두’를 제시한 예문으로 파악된다. 이는 (29다)와 같은 시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즉, (29다)는 ‘FC바르셀로나’의 대표로 ‘메시’를 내세울 수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를 내세울 수 있다는 예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집합의 대표 구성원을 제시하는 ‘있다’ 구문은 ‘이다’ 구문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다(29라-바). 그리고 이러한 경우, (29가-다)의 ‘있다’와 (29라-바)의 ‘이다’는 큰 의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있다’ 집합 구문에서 ‘있다’는 ‘이다’로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있다’ 집합 구문의 특징이다.

- (30) 가. 방에 책이 있다.
- 나. *방에 책이다.
- 다. 나는 책이 있다.
- 라. *나는 책이다.
- 마. 내 친구는 철수와 영희가 있다.
- 바. 내 친구는 철수와 영희다.

(30가-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소 구문의 ‘있다’는 ‘이다’로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유 구문의 ‘있다’ 또한 ‘이다’로

바뀌기 어렵다(30다-라). 이와 달리 집합 구문의 ‘있다’는 ‘이다’로의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함의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 (30마)는 내 친구로 철수와 영희 외에 다른 친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30바)는 그러한 추정이 다소 어려운 것이다.

다만 ‘있다’ 처소 구문 중에는 ‘이다’로의 교체가 가능한 예가 있다는 점을 반론으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있다’ 집합 구문과 유사한 사항이나, 의미가 다르다.

(31) 가. 우리 집 옆은 병원이 있다.

나. 우리 집 옆은 병원이다.

다. 내 친구는 철수와 영희가 있다.

라. 내 친구는 철수와 영희다.

(31가-나)와 같이, 처소 구문의 ‘있다’가 ‘이다’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미가 (31다-라)와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1다-라)는 내 친구로 철수와 영희 외에 다른 친구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31가-나)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 집 옆’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이다’로의 교체를 바탕으로 ‘있다’ 처소 구문과 ‘있다’ 집합 구문을 동등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있다’ 집합 구문은 ‘이다’ 구문과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존중한다면, ‘있다’ 집합 구문을 ‘있다’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있다’ 집합 구문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이 처소 구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소가 추상화된 것이 전체 집합으로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있다’ 집합 구문이 처소 구문 및 소유 구문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인 현상을 정리하고, 이를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되는 ‘있다’ 집합 구문의 고유한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장에서는 논의를 위해 ‘집합’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학의 집합 개념이 ‘있다’ 구문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수학의 ‘집합’과 ‘있다’ 구문에서의 ‘집합’이 어떻게 다른지도 논의하였다. 차이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부분집합과 원소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집합에 해당하는 명사의 의미적인 자질이 수학의 전체집합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이었다.

3장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있다’ 집합 구문의 전체집합에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였다. 전체집합에 결합하는 조사로 ‘-에’, ‘-은/는’, ‘-이/가’, ‘-로’를 들 수 있었다. 둘째는 ‘있다’ 집합 구문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였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이 전형적인 이중 주어 구문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은 ‘있다’ 집합 구문을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을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논의하였다. 첫째는 ‘있다’ 집합 구문의 명사구가 가지는 정보단위이다. 본고에서는 전체집합은 화제, 부분집합이나 원소는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는 어순 변이이다. 본고에서는 ‘있다’ 집합

구문의 어순 변이가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는 ‘있다’ 집합 구문의 명사구의 한정성 여부이다. 본고에서는 전체집합은 비한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부분집합이나 원소는 한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파악하였다. 이로 인해 ‘있다’ 집합 구문은 나열하는 대상 외에 추가적인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있다’ 집합 구문은 ‘있다’ 처소 구문 및 ‘있다’ 소유 구문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있다’ 집합 구문은 ‘있다’ 구문의 독립된 한 유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많은 ‘있다’ 구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건희(2003), 형용사의 주격 중출 구문과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하여, 《한말연구》 13, 한말연구학회, 1-37.
- 김건희(2018), 주격중출구문에 대한 일고찰 -정보구조와 문장 확대 구성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6, 우리말글학회, 1-33.
- 김기혁(1998), 존재와 시간의 국어 범주화, 《한글》 240·241, 한글학회, 205-238.
- 김기혁(2005ㄱ), 《언어의 생성과 응용》, 도서출판 박이정.
- 김기혁(2005ㄴ), 《언어의 인식과 분석》, 도서출판 박이정.
- 김기혁(2006),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51-76.
- 김동석·김용하(2001), 존재/소유 구문의 논항 구조, 《우리말글》 22, 우리말글학회, 67-83.
- 김미영·김진수(2018), 한국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연구, 《한국언어문학》 105, 한국언어문학회, 40-70.
-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 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국(2017), 여격 주어 논의 쟁점과 방향, 《형태론》 19-1, 형태론, 편집위원회, 80-119.
- 김영희(2006), 《한국어 샘술화 구문의 통사론》, 한국학술정보.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김천학(2012), 소유 관계와 소유 구성, 《한국어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25-148.
- 남경완(2017), 있음(being)의 개념적 의미와 언어 표상, 《언어와 정보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77-309.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사.
- 남기심·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 제3판》, 탑출판사.
- 남길임(2004), 《현대 국어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두임림(2010), 주격 중출 구문의 정보구조적 분석, 《한국어의미학》 31, 한국어의미학회, 1-22.
- 목정수(2005), 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75-99.
- 목정수(2016),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語文研究》 44-3, 한국어문교육연구

회, 7-46.

박승윤(1997), 밖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57-70.

박양규(1975), 所有와 所在, 《國語學》 3, 國語學會, 93-117.

박진호(1994), 현대국어 ‘만’, ‘뿐’, ‘따름’과 중세국어 ‘만’, ‘뿐’, ‘따름’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국어학논집》 2, 태학사, 135-143.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國語學》 73, 國語學會, 377-437.

박진호(2016), 환유 개념의 통사적 적용, 《한국언어학회 발표자료집》, 한국언어학회, 381-396.

박진호(2017),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 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 《언어와 정보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1-340.

박호관(2003), 국어 수량 명사 구문의 통사 구조,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1-23.

박형진(2016),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사 레(2014), 한국어 존재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창선(2009), 보조사 ‘서’의 의미 특성 (1), 《언어과학연구》 50, 언어과학회, 121-144.

신선경(1996), 있다가의 소유 구문에 대한 소고,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5-191.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국어학총서).

安平鎬(2004), 存在動詞에 관한 韓日對照研究, 《일본학보》 61, 한국일본학회, 167-182.

유동석(1998), 주제어와 주격중출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47-81.

유현경(1998), 《국어형용사연구》, 한국문화사.

유현경(2013), 있다가의 품사론, 《어문론총》 50, 한국문학언어학회, 187-208.

이선웅(2007),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159-185.

이성우(2019), 중세 한국어의 ‘있다’ 구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안구(2002), 있다가 없다가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영경(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태학사.

이필영(1994), 속격 및 수량사구 구성의 격 중출에 대하여, 《國語學研究(남천 박갑수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태학사, 193-225.

이현희(1994), 《中世國語構文研究》, 신구문화사.

임근석(2009), 國語 形容詞 {이-}의 語彙素 分類 試稿, 《語文研究》 37-1, 韓國語文教育研究會, 133-159.

- 임근석(2012), 국어 {이다}의 어휘소 분할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299-329.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단위, 《語學研究》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7-138.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韓國文化》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1-66.
- 임동훈(2017),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國語學》 82, 國語學會, 101-125.
- 장경희(2018), 공간 관점에서 본 한국어 문법형태소 -느-와 -다-, 《國語學》 85, 國語學會, 3-43.
- 전영철(2000), 한국어 존재문의 구성,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261-280.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영철(2015), 한국어 집합명사와 복수 표지 ‘들’, 《語學研究》 5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93-814.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함병호(2018ㄱ), 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함병호(2018ㄴ), 이중 주어 구문의 정보 구조, 《한국어학》 81, 한국어학회, 325-260.
- Dieter Stein & Susan Wright(1995),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 Huang, Y(2007),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iler, H.(2008), Possession: Variation and Invariance, *Universality in language beyond grammar*, Universitätsverlag Brockmeyer.
- Stassen, L.(2009), *Predicative Possession*, Oxford University Press.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1호]

전화: 02-2220-0730

E-mail: mummy719@hanmail.net

투고 일자: 2019. 11. 10.

심사 일자: 2019. 11. 19.

게재 확정 일자: 2019. 12. 07.

A type of “issda(있다)” construction associated with a set
[Lee, Sung Woo]

집합과 관련된 ‘있다’ 구문의 한 유형 [이성우]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ssda(있다)’ associated with a set. In the previous discussion, the construction ‘issda(있다)’ is largely divided into locative construct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 but in this paper, the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are treated as construction types that are distinct from locative construct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is, the two aspects were discussed. First, the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syntax is analyzed. First, we argued that the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are distinguished from locative construct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 based on a case marker and auxiliary that combines with noun phrases. It is also mentioned that the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is not a double nominative case construction. Secondly, we analyzed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in terms of information structure. For this, the information units of the first noun phrase and the second noun phrase analyzed topics and focuses, And we examined whether word order variation could occur in the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Along with this, the semantic comparison of the the ‘issda(있다)’ set construction and the ‘ida’ construction was also mentioned.

Key words: issda(있다), set, double nominative case construction, information structure, topic, focus